

국제 안전보건 동향

2018. 9.

Vol. 453

Global Trends
on Safety and Health at Work

국제안전보건동향은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
발간하는 월간 국제 산업안전보건 동향 소식지입니다.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국제협력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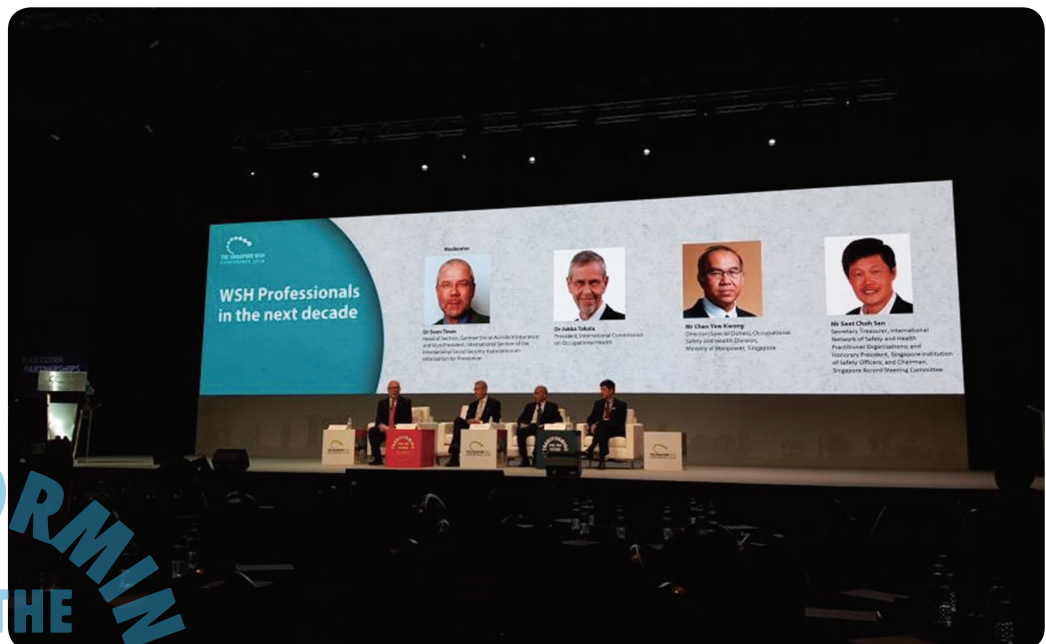


Contents

 [사고사망 재해예방]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 장기 발전전략(WSH 2028)	03
 가스감지기 : 감지기술의 연결	09
 미국, 재난 발생 전·후 및 발생 시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 권고	13
 국외 산업안전보건 단신 • 우울증을 앓는 노동자, 지지적인(supportive) 상사와 근무하는 경우 휴가 덜 사용	17

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 장기 발전전략(WSH 2028)

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안전보건 장기 발전계획인 WSH 2015 및 WSH 2018 수립, 시행을 통해 2004년 100,000명당 4.9명 발생하던 사고사망재해를 2017년 1.2명까지 감소시켰으며, 2028년까지 1.0명 이하 감소, 유지를 목표로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, 시행하려 함¹⁾



**TRANSFORMING
FOR THE
FUTURE**
HEALTHY WORKFORCE,
SAFE WORKPLACES
29 - 30 AUGUST 2018 • SUNTEC SINGAPORE

1) 출처 : <http://www.singaporewshconference.sg/>

'18. 8. 29 ~ 30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 'The Singapore WSH Conference 2018' 주요내용을 정리

사업장 사고사망을 지속 감소

1 WSH 2015, 2018 주요원칙

- 근원적 위험(Risks) 감소
 - 위험을 생산하고 통제하는 자에 대한 의무 부여
 - 엄격한 벌칙 부과를 통한 사고 예방
- ※ 장기 발전전략 실행을 통해 100,000명당 사고사망률을 1.2 (2017년)까지 감소시킴
(12년간 57%의 감소 실적을 거둠)
- ※ 100,000명당 사고사망률 1.0 이하 달성 및 지속 유지 필요





WSH 2028 체계

1 비전 : 안전한 작업장, 건강한 노동자

2 3대 추진전략

- 산업안전보건 주체 의식 강화
- 작업장 건강 문제에 관심 강화
- 산업안전보건 성과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활용

3 추진전략 목표

- 사업장 규범이 모든 재해 및 질병 예방을 추구하는 비전제로의 전사적 채택
- 지속적인 100,000명당 사고사망률 1.0 이하대 유지
-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안전보건을 지향하는 작업장 유지



추진전략 세부내용



1 산업안전보건 주체 의식 강화

- 우수한 산업안전보건 성과를 요구하는 기업환경 조성
 -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성과 투명화
 -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산업안전보건 공공조달기준 통일
-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보다 더 큰 주체의식을 요구하는 규제환경 조성
 - 기업의 경영층에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보다 더 큰 책임 요구
 - 안전보건 고 성과자에 대한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및 저 성과자 독려
- 예방, 신뢰 및 돌봄의 산업안전보건문화 증진
 - 기업의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 활용을 위한 CultureSAFE 프로그램 개선
 - 청소년들에게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 가치를 두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능력(Competencies)을 제3차 교육기관의 과정에 통합



2 작업장 건강 문제에 관심 강화

- 직업병 예방 강화
 - 특정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암과 같은 보고대상 직업병 리스트의 검토 및 확대
 - 직업병 조기발견을 위한 역량 강화
- 통합적 안전보건 접근법 채택 증진
 - 통합적인 안전보건서비스 강화
 - 기업의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관계자를 위한 학사 예비과정 개발
- 작업장 건강증진 활성화
 - 작업장에서 건강증진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

3 산업안전보건 성과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활용

- 산업안전보건 기술 혁신 및 적용 독려
 -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안전보건 혁신 및 적용을 위한 「산업안전보건 혁신 및 기술센터」 설립
- 세계 수준급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기술 활용
 -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전달 방식 및 평가 기준 향상을 위한 기술 활용



싱가포르 국제자문위원 자문 의견

자/문/의/견

- 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싱가포르는 많은 것을 이루어 내었으며, 향후 사고사망율을 100,000명당 1명 이하로 줄여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음
- ② 그러나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 규모를 가지고 있어 미미한 변동(오르내림)에 사고사망율이 쉽게 영향 받을 수 있음
- ③ 경제적, 인구적 및 기술적 변화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경영모델 및 고용형태의 관점에서 미래의 노동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함
- ④ 싱가포르 장기 발전전략(WSH 2028)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



1 사고나 아차사고로 부터의 학습 강화

- WSH 2028에 명시된 예방, 신뢰 및 돌봄 문화가 기업에 반영되어 사고나 아차사고로 부터의 학습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
- 잠재적 사고예방을 위해 작업공정(절차)에서의 개선 부분을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 아차 사고의 철저한 조사는 중요한 일임
- 아차사고 조사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강구 필요

2 산업안전보건 주체 의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 강화

- 기업수준에서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참여 강화를 위해 강력한 노사정 관계의 구축 필요
-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중요한 만큼 노동자의 기여 및 참여 또한 동등하게 중요한 문제임.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그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과제에 대한 상황, 위험 및 잠재적 해결책에 관한 귀중한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



3 고위 경영층(이사회)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개선 추진

- WSH 2028 전략에 기술된 경영환경을 산업안전보건 성과를 요구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동의하며, 고위 경영층(이사회)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정하는 것(실행규약)에 동의함
- 실행규약은 경영층(이사회)이 안전보건에 관한 그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대치 설정에 도움을 줄 것임

4 직업병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위험 관리

- WSH 2028 전략에 기술된 직업병 리스트 확대에 동의하며, 다른 작업 관련 건강위험 (예. 사회심리적 스트레스) 확인 및 대처가 중요함

5 프리랜서 등 자영업자에 대한 주요 산업안전보건 책임 명확화

- 많은 나라에서 프리랜서와 같은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도 향후 10년 동안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처 필요

시사점

-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안전보건 장기 발전계획인 WSH 2015 및 WSH 2018 수립, 시행을 통해 2004년 100,000명당 4.9명 발생하던 사고사망재해를 2017년 1.2명까지 감소시켰으며, 2028년까지 1.0명 이하로 감소·유지를 목표로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, 시행 준비 중임
-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 수립 단계에서 전 세계 저명한 안전보건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자문단을 구성·운영하여 해당 전략의 개선점 등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
- 공단에서도 사고사망자수 감소를 위한 사업계획 등 중·장기 발전전략 수립 시 저명한 국외 안전보건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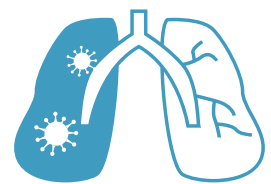
가스감지기 : 감지기기술의 연결

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휴대하고 있는 감지기를 통해 작업자에게 이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지원이 가능하며, 이를 통해 밀폐공간 및 단독작업 등의 위험작업 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음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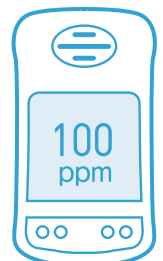


요약

- 영국에서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매년 약 15명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고 있음. 독성가스에 치명적일 정도로 노출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, 고농도의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. 영국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독성 미립자 노출로 인해 30,000명의 노동자가 호흡기나 폐 문제로 고통 받고 있으며 매년 12,000명이 폐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음



- 이러한 상황에서 휴대용 가스감지기는 단독작업 중인 작업자가 독성가스 노출한계를 초과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



1) 출처 : <https://www.ioshmagazine.com/article/lone-worker-special-detection-connection>

정보의 단절

- **휴대용 감지기는** 착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단독 작업 중인 작업자가 사고가 발생하여 경보를 울릴 수 없을 때, 관리자에게 작업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지는 못함
- 또한 안전관리자(특히 대규모 인력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경우)에게는 휴대용 가스감지기가 적절하게 검사·유지되고 있는지,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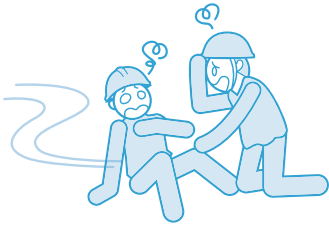
상호 연결

- 그러나 최신의 휴대용 가스감지기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음
- [기능1] 블루투스칩이 설치되어, 원격 모니터링을 위하여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음
- [기능2] 저전력, 소형화된 센서 및 전자장치와 고성능 배터리의 결합으로 12시간씩 교대로 사용이 가능함
- [기능3] 구형 휴대용 가스감지기도 충전포트에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된 장치를 부착하여 스마트폰과 연결, 최신 감지기들이 가진 장점들을 사용할 수 있음

실시간

- **블루투스 연결**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작업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의미함. 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작업자를 추적하고 환경, 경보이력, 장비안전 및 노동자 교육기록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음

- 독성가스 측정 값, 부상 경고(man-down alerts) 및 작업자 위치와 같은 중요 데이터는 실시간 무선으로 자동 전송됨. 최신세대의 휴대용 가스감지기는 블루투스 외에도 Wi-Fi 및 GPS 무선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네트워크가 없는 장소에서 단독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와의 연결을 유지해줌



- 예를 들어 관리자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현재 위험상황이니 해당 작업장소를 벗어나도록 경고하거나, 부상경고가 수신되면 즉시 구조대를 보낼 수 있음. 또한, 작업자를 구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더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잠재적인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음

- **최신의 휴대용 가스감지기는** 생체인식 감시장치가 포함되어, 작업자의 심박 수, 호흡 및 체온 등의 건강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안전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함

- 이러한 휴대장치의 데이터를 저장하여, 안전관리자가 작업자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유해 물질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노출을 분석할 수 있음. 이 데이터는 작업자의 노출제한을 위한 작업패턴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

- **스마트폰 기술을 사용하면 더욱 편리함.** 운영환경이 가능할 경우 사업주는 작업자 개인의 스마트 폰을 활용하거나, 작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산업용폰을 제공하여 스마트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. 스마트폰 시스템은 스캐너나 카메라 등의 기능이 하나의 장치에 통합되어 있어 이와 같은 부수적인 장비를 추가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. 위험장소에서의 사용이 인증된 스마트폰은 폭발위험이 있는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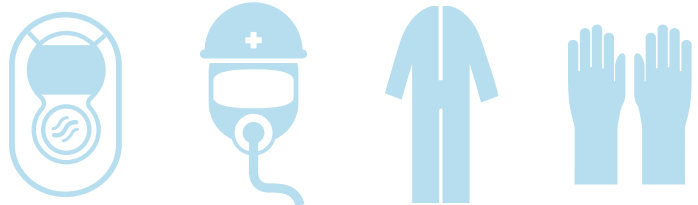


실시간 관리

- **감지기의 실시간 연결기능**은 감지기 검사 및 유지·보수를 간소화함. 일부 안전관리 소프트웨어는 테스트, 인증, 사고 및 기타 주요 보고서를 생성하여 장치설정 및 점검을 간소화해 줌. 제품의 인증이 완료되면 안전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며, 또한 장비교정, 범프테스트 및 사건 데이터 등의 장치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

- 감지기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제실에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는 가스 측정 값 전송을 위해 일정 간격마다 작업을 중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작업 시간이 단축됨

- 또한 최신 산업용 스마트폰 앱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특정 작업별로 어떠한 가스감지기 및 개인보호구(PPE)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리자와 작업자 모두 위험한 환경에 접근하기 위해 적절한 허가나 교육을 받았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



기타

-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더 잘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상호 연결기술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그 외의 차세대 안전장치는 다음을 생각할 수 있음. 안전모나 안전대 등의 개인보호구를 위치에 관계없이 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음

시사점

- 스마트폰, 블루투스 등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항상 착용 하거나, 휴대해야 하는 개인보호구, 휴대용 장치(감지기 등)를 활용하여 밀폐공간작업, 단독작업 등 다양한 위험작업 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술개발, 그에 따른 사업장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시 필요

미국, 재난 발생 전·후 및 발생 시 사업장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 권고

미국 산업안전보건청(OSHA)은 허리케인,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야기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대피 훈련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 제시¹⁾



요약

미국 허리케인 시즌에 따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(OSHA)은 자연재해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사업주의 역할을 강조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, 전·후 유의사항을 업데이트 하여 발표

비상상황 발생 전 대비를 위한 유의사항

1 미연방규정 제29, 1910.38에 따르면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서면 비상조치계획(Emergency Action Plan, EAP)을 반드시 수립하여 비상 시 사업주 및 노동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함

- 비상조치계획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계획 내 본인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함
- 훈련 시 사업주는 노동자의 글을 읽을 수 있는지 여부, 언어, 문화적 요소 등을 고려하고 훈련에 대한 기록을 문서화해야 함

1) 출처: <https://www.ehstoday.com/print/23918>, <https://www.cdc.gov/niosh/topics/emres/flood.html>



2 비상조치계획 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

- 비상상황(화재, 홍수 등) 발생 시 신고 수단
- 대피 절차 및 지정 대피로
- 비상 대피를 위해 전 직원이 따를 수 있는 절차
- 뒤에 남아 반드시 중요한 시설을 작동시킨 후 대피해야하는 직원을 위한 절차
- 응급 구조 및 치료를 담당하는 직원의 임무
- 비상조치계획을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담당 직원 이름 및 직위

3 사업주가 비상조치계획에 포함시켜야하는 권고사항

- 가장 가까운 병원 및 응급실 위치
- 노동자에게 비상 상황임을 알리기 위한 경보 시스템 종류
- 대외비 문서 및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 정보보안 조치
- 휴대용 제세동기, 구급상자, 소화기 등 구호장비 위치 및 올바른 사용법
- 재난 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의 위치



비상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를 위한 유의사항

1 비상상황 발생 시 조직원을 지키고 패닉이나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다음 권고사항을 참고

-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업주는 노동자가 야외로 대피하거나 실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대피 경보 구분*
 - * 예 : 건물 내에 머무름, 건물 밖으로 대피, 특정 구역 접근 금지 등
- 시각 및 청각 장애를 가진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경보 시스템을 활용
- 어떤 비상상황이며 어디서 발생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 습득 방법
-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한 정보
- 작업장으로 돌아가도 되는 안전한 시기 및 방법
- 가족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시간 및 방법



비상상황 발생 후 대처를 위한 유의사항

- 1 사업주는 비상상황 발생 후 사후 수습 과정에서 노동자가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주의해야 하는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음
 - 석면, 곰팡이, 납 및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
 - 물이나 진흙탕 등에 늘어뜨려져 빠져있는 전선 및 나무
 - 일사병, 혈액 매개 질병 및 전염병,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모기 매개 질병
 - 불안정한 구조물 및 건물, 밀폐공간 등
- 2 OSHA는 '허리케인 대응 및 복구 작업을 위한 위험 노출 및 위험성 평가 지표²⁾'를 통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및 노동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소개함
- 3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(NIOSH) 및 질병관리본부(CDC)는 태풍, 홍수, 허리케인 등 비상 사태 대응 방안 등을 웹사이트에서 제공, 사업주 및 노동자가 사전 및 사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1	천재지변에 의한 비상사태 대응 방안	https://www.cdc.gov/niosh/topics/emres/natural.html
2	허리케인 대응 활동에 필요한 정보	https://www.cdc.gov/niosh/topics/emres/pdfs/NIOSH-Emergency-Responder-Key-Messages-FINAL-CLEARED-RELEASE-October-9-2017-_updated-sept-25-2018.pdf
3	허리케인 예방 및 복구 관련 자료	http://emergency.cdc.gov/disasters/hurricanes
4	허리케인 및 홍수 후 고려해야 하는 곰팡이 방지 전략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	https://www.cdc.gov/mmwr/preview/mmwrhtml/rr5508a1.htm
5	홍수 후 청소 및 균류(곰팡이류) 위험요소	https://www.osha.gov/OshDoc/data_Hurricane_Facts/Bulletin3.pdf
6	허리케인으로 손상된 건물의 밀폐공간 안전 작업 권고사항	https://www.cdc.gov/niosh/topics/emres/confined.html
7	천재지변으로 인한 건물 잔해 처리 작업 및 잔해에서 시작된 화재 대응방안	https://www.cdc.gov/niosh/topics/emres/burningdebris.html
8	구호 활동 노동자 및 응급요원을 위한 건강 권고사항	https://www.cdc.gov/niosh/topics/emres/preexposure.html
9	천재지변 사후 대응방안	https://www.cdc.gov/niosh/topics/emres/sitemgt.htm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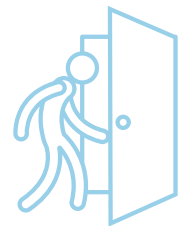
2) Hazard Exposure and Risk Assessment Matrix for Hurricane Response and Recovery Work

복수 사업주의 작업장 원칙

재난 발생 후 청소를 위해 외부 계약업체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이 계약업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의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함 → 즉, 사업주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 뿐 아니라 사업장 부지 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안전 예방조치를 수립해야 함

권고사항

- 1 사업주는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다양한 발생가능 상황에 대처하고 상황에 따른 노동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수립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음
 - 재난 발생 후 노동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
 - 비상대피 계획 및 기타 비상사태 대응 절차에 대한 노동자 교육훈련
 - 사후 정리 작업 전 업무위험성평가 및 관련 OSHA 기준 검토
 - 청소 작업을 위한 외부 계약업체 고용 시 업체의 안전 기록을 평가
평가 항목에는 계약 업체의 노동자 보상 기록, OSHA 업무관련 부상 및 질병 기록, OSHA 소환장 발부 기록 등이 있음



시사점

- 자연재해 등의 재난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사업장에서는 계획 수립 및 훈련 등을 통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후 수습(청소)과정에서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주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. 즉, 국내에서도 사업장의 올바른 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공 등 필요



국외 산업안전보건 단신



우울증을 앓는 노동자, 지지적인(supportive) 상사와 근무하는 경우 휴가 덜 사용¹⁾



1 노동자의 우울증에 상사의 대처하는 방식과 작업장에서의 생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위해 **15개국* 노동자 및 상사 16,000명 이상의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** 상사가 노동자의 우울증에 관해 대화를 피하는 국가에 있는 노동자가 **평균적으로 4.1일의 휴가를 더 사용하는** 것으로 나타남

※ 대한민국, 브라질, 캐나다, 중국, 일본, 멕시코, 남아공, 미국 및 유럽 7개국

2 반면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동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하는 상사가 많은 국가들의 경우 결근율이 낮았음

- 지지적인 상사는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기 부여된 상태가 유지 되도록 도와주고 자신들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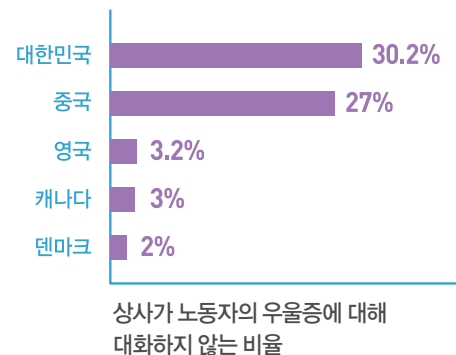
1) 출처 : <https://www.ioshmagazine.com/article/depressed-workers-supportive-managers-take-less-time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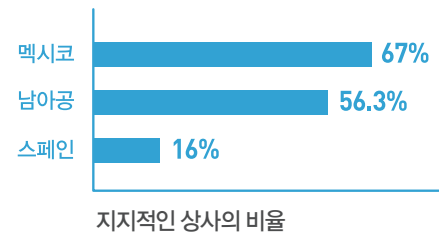
- 3 상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직장 환경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회피행동을 부추겨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남

- 4 영국의학저널에 출간된 “상사의 지지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관계가 있는가?”라는 연구에 따르면 **아시아지역 국가의 상사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함**

- 대한민국 응답자의 30.2%, 중국 응답자의 27%가 상사가 노동자의 우울증에 관해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함. 덴마크는 지지적인 상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, 단 2%의 응답자만이 자신의 상사가 이러한 주제에 관한 대화를 피한다고 응답함.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각각 3%, 3.2%를 기록함



- 지지적인 상사의 비율이 높은 국가 : 멕시코 (67%), 남아공(56.3%) 스페인(16%)
- 일본의 경우 16%의 응답자만이 상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지적이라 응답함



- 5 프란세스 오그레디(Frances O'Grady) 국제노동조합연합²⁾ 사무총장은 ‘아파도 억지로 일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’고 언급하며 좋은 사업주는 노동자의 몸이 좋지 않을 경우 꼭 쉬게 하여 회복 할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한다고 덧붙임



2) TUC, Trade Union Congress



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

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

Tel. 052-7030-746

Fax. 052-7030-326

E-mail. overseas@kosha.or.kr

Web(kr). www.kosha.or.kr

Web(En). <http://english.kosha.or.kr>

- ※ 본 자료 및 출처(URL포함)는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원본자료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며, 웹사이트 기사를 주로 사용하므로 추후 웹사이트 링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.
- ※ 국제안전보건동향은 이메일을 통한 정기 구독이 가능합니다.
신청 및 관련 사항은 국제협력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